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 목 : 질투하시는 하나님 성경: 신명기 29장 18-28절

18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19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20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21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22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23 그 온 땅이 유향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24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 그 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27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신 29:18-28)

질투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 느끼는 분노의 감정이다. 질투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는 분노의 감정이다. 그런데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분노의 원인이 사랑에 대한 배신에서 출발한다.(또는 배신의 오해도 가능함)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면 점화되지 않는 감정이다. 또한 상대방에게 배신의 소지가 없어도 점화되지 않는 감정이다. (사랑과 배신에 대한 유명한 비극 셰익스피어의 오셀로 - 데스테모나, 이야기)

<오늘 아침 페이스북에서, 남정우>

남편이 바람을 핀다면....

프랑스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죽인다

이태리 부인은 남편을 죽인다

스페인 부인은 둘 다 죽인다

독일 부인은 자기가 자살한다

영국 부인은 모른 척 한다

미국 부인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일본 부인은 남편의 정부를 만나 헤어져달라고 사정한다

중국 부인은 같이 맞 바람핀다

한국 부인은?

대통령 물러나라고 데모한다... ?

그런데 여기까지의 설명으로도 질투의 감정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했다. 왜냐면 짝사랑으로 점화되는 질투란 부적절한 것이 된다.

즉 질투에는 정당한 질투가 있고, 부적절하거나 악한 의도가 섞이거나(이야고 처럼), 지나친 질투를 표현하는 투기가 있다.

정당한 질투란 마땅한 이유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거나, 법적으로 부부이거나,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촉발된 질투를 말한다.

마땅한 관계이고 마땅히 질투가 촉발되는 상황인데도 질투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배신에 속한다.

부적절한 질투이거나, 투기성 질투에 대한 경험 때문에 질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질투는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것은 정당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정의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인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는 정당하시며 하나님께 질투를 유발하는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 되심과 그 영광과 권세와 권위는 그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 스스로도 결코 이것을 다른이에게 주거나 빼앗기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비난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자신이 만든 자신의 형상을 자신이 파멸시키기 때문 이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할 수 있지만(가능성),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악한 것).

만약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어야 할까?

그것을 가능하게 한 자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까?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자청해서 책임을 졌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능성을 허용한 것이 잘못이라고 역지를 부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

사실은 그 '가능성' 때문에 자신들도 역지를 부릴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역지소리를 듣기 싫어서 '가능성'을 포기하실 분인가?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을 선택하지만 않는다면, 이 가능성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 가능성을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경고하셨다. 항상 선을 행하라고.

음주운전의 위험 때문에 모든 자동차를 없애야 하는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자동차를 허용해야 하는가? 간단한 문제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한 댓가까지 모두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심판에 대한 정당성까지 확보가 된 상태이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앞 부분 세가지 계명이 곧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명이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특히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에는 가장 단호한 표현을 사용하셨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심지어는 저주의 말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로 하나님 스스로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상과 관련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시다. 우상과 관련된 죄악을 지지르는 자들에게는 온갖 저주가 임하게 하셨다. 김일성 우상을 섬기는 북한 사회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왜 이토록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강경하실까? 그리고 그 진노는 정당한 진노이신가?

그렇다, 하나님의 진노는 정당하시다. 오히려 택한 자들을 위해서 또는 중보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 진노를 늦추시고 계신다.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20:5)

24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신4:24)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신5:9)

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

실까 두려워하노라 (신6:15) - 모세의 설교

20 여호와와는 이런 자를(우상숭배자) 사하지 않으실 뿐아니라 여호와와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의 위에 붓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신29:20)

16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신32:16)

21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신32:21)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이 부분에 해당하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믿거나 말거나 현실은 대단히 설득력있는 주장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명이 가능성으로 주어졌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 물론 우리가 이 가능성으로 하나님께 대항할수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가능성이 촛불을 다른 나라로 옮겨가실 것이다.

우리교회는 이 가능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교회이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의 열정을 바치라.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